



Greetings. My name is Sister Judy Laffey. I entered from Resurrection Parish right after graduation from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 knew the Sisters of Charity all my life because they staffed my grade and high schools. I loved the sisters and couldn't wait until they returned to school each August. I always went to help the sisters prepare the classrooms each year. I would wash the desks, cut out letters for bulletin boards, and count books. It was during my grade school days that I began praying to Dear God that I would like to be a Sister of Charity if He wanted me too. I would imagine being a sister and I pretended that I was teaching school wearing some type of cap and cape!

When I was in sixth grade I read books about Sue Barton: Student Nurse, Graduate Nurse, and Public Health Nurse.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I thought of being a nurse. When I went to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 knew that I really wanted to be a Sister of Charity. I made a week-end retreat at Seton Hill one summer and was so impressed with the young sisters. The retreat director said something that I would never forget: "If you want to be sister in the future, you must be a good girl now." Right or wrong, I thought about that statement for a long time and prayed to be a good girl!

I entered September 8, 1958. After novitiate I taught first and second grade for 10 years and loved it. However my desire to be a nurse was always strong. One evening while doing dishes, a strong yearning filled my heart. I knew it was of God. I spoke to Sister Sara Louise Riley, who was in charge of our education. I was known to be a good primary teacher, but when I talked about my interest and excitement about serving God as a nurse, the path opened up. I left for the College of Mount St. Joseph,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of Cincinnati. I received my BSN in May 1972. Thus began my ministry as a nurse, which I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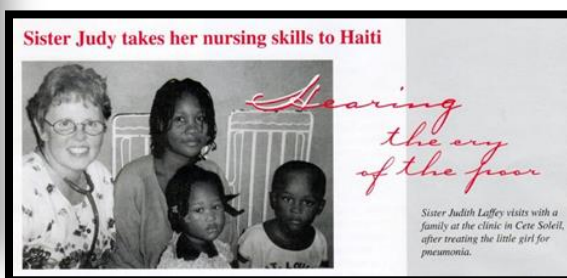
I worked in hospital settings and practiced in home health care. I leaned toward helping patients and families going through a serious health crisis. Work as a clinical nurse specialist in cancer care helped me realize the importance of pain management and of health care ethics for dying patients.



After undergoing treatment for breast cancer myself, I realized I could use my nursing skills, my spirituality, and my own experience to minister in clinical pastoral care (CPE). Eventually I came to our motherhouse and served for eight years as pastoral care minister to our sisters living at Caritas Christi. I then served for five years as Director of Nursing at Caritas Christ until I retired in March 2017. So now is the time to take some time for rest in body, mind and spirit. I will be on

sabbatical at Springbank Retreats in South Carolina. The overall theme of the sabbatical is Eco-Spirituality, Justice, and the Arts.

My 58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of Seton Hill have been filled with excitement and many changes. God has blessed me with many gifts that I pray I will continue to use for His people.





안녕하세요! 주디 래피 수녀(Sister Judy Laffey)입니다. 저는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수도회에 입회 했습니다. 부활 본당(Resurrection Parish) 출신이지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우리 수녀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줄곧 우리 수녀님들과 달 알고 지냈어요. 저는 우리 수녀님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8 월의 학교의 개학을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해마다 수녀님들의 교실 환경정리를 도우러 갔지요. 책상을 닦고, 게시판에 붙일 글자를 오리고, 책을 정리하곤 했답니다. 사랑하올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랑의 수녀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수녀님이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모자와 망토 같은 것을 입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흥내를 내보고는 했지요! 6 학년 때는 수 바튼의 「간호 실습생, 간호사, 공중보건 방문 간호사」 (Sue Barton: Student Nurse, Graduate Nurse, and Public Health Nurse) 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때 저는 처음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사랑의 수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씨튼 힐에서 주말 피정을 했었는데 그 때 젊은 수녀님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피정을 지도해주신 분께서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네가 미래에 수녀님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은 착한 소녀가 되어야 한다.” 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착한 소녀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958 년 9 월 8 일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수련자 이후로 10 년동안 초등학교 1,2 학년을 가르쳤고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항상 깊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깊은



갈망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갈망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사라 루이즈 라일리 수녀님(Sister Sara Louise Riley)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 때 저는 좋은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간호사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저의 관심과 흥미를 이야기했고 저에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신시네티 사랑의 수녀님들이 일하고 있는 마운트 세인트 요셉 대학(College of Mount St. Joseph)에서 공부하고 1972 년 5 월 간호학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했던 간호사로서 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일을 했고 방문 간호사로 일도 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법을 배웠어요. 암 병동 전문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고통과 보건 윤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유방암 치료를 받은 후, 저는 저의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영성,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임상사목(CPE)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원으로 돌아와 임상 사목자 로서 카리타스 크리스티에 살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을 위해 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카리타스 크리스티의 간호 담당으로 5 년 동안 사도직을 한 후 2017 년 5 월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 영적인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곧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스프링뱅크 피정의 집에서 생태 영성, 정의 그리고 예술이라는 주제로 안식의 시간을 지낼 거예요.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58 년동안의 저의 삶은 흥미로운 일들과 많은 변화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많은 선물로 저를 축복해주셨고 제가 그 선물을 계속해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 드립니다.

